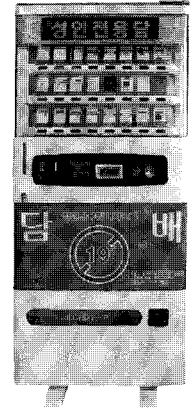


#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한 담배자판기 활용방안에 대한 제고



**청**소년 흡연률 세계 2위, 아시아 1위. 활발히 확산되는 범사회적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면 늘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지 않았나 한번쯤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인들의 관심과 질타 등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흡연 억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구원할 릴리프로서 담배자판기를 등판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과거만 해도 담배자판기 청소년 흡연조장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철수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오명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기술발달은 이제 과감하고 자신있게 등판을 자청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등판한 릴리프는 성인인식장치라는 강력한 강속구로 자신 있게 청소년 흡연증가라는 강타자를 삼킨 아웃 시킬 수도 있는 게 현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담배자판기를 보는 시각변화와 신뢰이다. 100% 청소년이용을 차단할 담배자판기를 이용, 기존 유인 판매 유통수단을 대체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 루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비법이 있는 마당에 담배자판기를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협회에서는 대정부 관련부처 설득을 진행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마인드 변화, 산업계 및 어른의 지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하기의 내용이 적극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

활발히 확산되는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이 세계 2위, 아시아 1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은 그 수치적 부끄러움보다는 국가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가의 청소년 흡연률 저하를 위한 대책이 어찌했기에, 또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청소년 흡연률 증가의 원인이 청소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일시적 캠페인성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극단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도 명쾌한 결론은 바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 사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무리 19세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청



소년들은 어떻게든지 담배를 구입해 소비하고,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현행 규제에 콧바위를 꾸며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은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이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있어선 대부분의 편의점 점원들이 일일이 청소년 신분증 구별을 강제하기는 힘든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청소년으로부터 담배구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사람의 대면에 의한 담배판매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로서 규제한다고 해도 구입차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같은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계, 즉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연령인식을 통해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담배구입 가능성은 제로(0%)입니다.

과거에는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담배구입의 취약지대로 지탄을 받으며 외부규제가 되었지만 새로운 성인인식기술을 적용한다면 정반대의 발상전환이 가능합니다. 기계를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성인인식담배자판기는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 담배구입의 사각지대인 편의점에 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성인인식담배자판기만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합시다. 비록 무리수는 있다할 지라도 일단 청소년 담배구입의 제1대상층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현행 규제되어 있는 담배소매점 외부설치 규제를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경우, 예외로 한다면 기존의 유인판매는 판매효율과 청소년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판매로 대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등록증 등 성인인식을 통한 담배자판기는 가장 청소년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예외 없는 기계에 판매를 맡기는 일만큼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술발달에 따라 이제는 과거의 관련법들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담배자판기들이 청소년 흡연을 증가의 주범으로 철폐를 맞았다면 이제는 성인인식자판기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 적극 설치를 독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과연 여론의 지탄을 받을까요? 청소년 흡연이 오히려 증가할까요?

“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연령인식을 통해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담배구입  
가능성은 제로(0%)입니다.

”

설치환경을 국가에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직접대상기관인 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현행 관련법령 개선을 주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무대책이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설치환경 마련작업이 관련 산업계와 더불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오니 과연 성인인식담배자판기가 청소년 담배구입루트 차단을 통한 적극적 보호효과에 대해 관련부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현행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시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같은 질의 제안자의 의견에 무리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급된 60여만 대의 담배자판기에 대해 향후 5년을 목표로 성인인식장치 부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천국이었던 일본에 역시도 청소년 보호문제를 위해 성인인식장치를 부착하여 청소년 담배구입루트를 차단하는 극단수를 택했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줄이고, 또 이를 위해 담배구입루트를 차단하려면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